



1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오카리나 수업을 듣고 있다. 남구 주민 1만여명은 각 주민센터에서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오는 10월 광주 세계아리랑축전에서 '진도아리랑' '임유위향행진곡' 등 5~7곡을 연주하게 된다. /나정주기자 mjna@kwangju.co.kr

오카리나에 빠진 남구 주민들 1만명 동시 연주 기대하세요

10월 세계아리랑 축제 앞두고 맹연습

'미레도레 미미미, 레레레 미미미~(땀땀땀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불리는 오카리나 선율이 1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암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남구 주민 40여명은 수업 첫 날 자신들이 동요한 소절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광주 세계아리랑축전에서 대합주를 펼칠 남구 주민 1만명으로 포함된 연주멤버다. 이들의 목표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 오카리나 합주 기네스 기록은 중국이 보유한 8000명이다.

교과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신 한광석(67)씨는 감사 신현남(여·51)씨의 구호에 맞춰 손가락을 바빠 움직였다. 40년여를 교직에 몸담아 왔지만 이날 낯선 처음 손에 쥘 악기가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숨을 두, 두, 두, 내 뱃속으로"라는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며 '도레미파솔' 운지법 하나하나

를 머리에 익혔다. 그는 오카리나를 다 배우게 되면 손자들에게 멋들어진 연주를 들려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길중(83)씨는 의욕만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기 위해 땀을 흘렸다.

이날 송암동주민센터에서 처음 오카리나를 손에 쥔 남구 주민들은 모두 40여명. 이들은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오카리나를 배우게 된다.

이들의 목표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아리랑축전 무대다. 이 무대 대합주에서 연주할 곡은 '진도아리랑' '강원아리랑' '임유위향행진곡' 등을 비롯해 세계아리랑 축전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빛의 아리랑'(가제) 등 5~7곡이다.

지난해 최영호 청장이 제안한 '1구민 1악기' 사업이 계기가 됐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오카리나를 악기로 선택했다. 오카리나는 8시간 정도

만 익히면 기본적인 연주들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서는 감사료와 악기 구입비 등으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현재 오카리나 교육을 받고 있는 남구 주민은 4000여명에 이른다.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까지 계층도 다양하다. 남구 경로당 곳곳에서도 매일 오카리나 선율이 흐르고 있을 정도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도 함께하고 있다. 배우고 싶다는 문의도 각 기관과 단체에서 이어지고 있다.

장희숙(여·59)씨는 "문화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장구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며 "열심히 연주한 곡으로 축제에 직접 참가해 숨쉴 땀낼 생각에 10월이 벌써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카리나=작은 거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카리나는 부리를 가진 '작은새' 모양으로 생겼으며 점토나 도자기,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이탈리아 악기. 크기는 10~20cm사이로 8~10개의 소리 구멍이 있고, 10도 가량의 음역을 가진다. 크기가 클수록 낮은 음을, 작을수록 높은 소리를 낸다.

오늘부터 '진짜장마'

장마전선 북상 광주·전남 150mm 안팎 비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 13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3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이날 오후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부지방도 13일 새벽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14일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기압골이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비가 잠시 멎었다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비가 오겠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15일 밤부터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13일부터 사흘 동안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제주도 10~50mm, 나머지 지역은 40~100mm다. 전남과 경남, 경기 북부는 1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중부지방은 13일 오전,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은 14일 낮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은 15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고 남하한 뒤 19일까지 남해상에 주로 머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 총장선거 소액 항응이라도 징계는 정당"

전주지법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복 결정과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복 결정과 징계부가금처분을 받은 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등을 고려할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 "선거와 관련해 식사 또는 물품을 받은 원고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주의 원리에 중대한 위헌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이 불복결정을 받으면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특별히 과중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등은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광찬 후보로부터 각각 1만2000원~5만9000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항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전북대 '총장직선제 존폐' 묻는 교원 투표 돌입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가 12일부터 직선제 존폐 여부를 묻는 교원투표를 돌렸다. 투표 대상은 전임교원 973명이다.

대학은 12~17일 공무원 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교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를 하고 18~24일 본투표를 한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 일부 보직교수들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도 결국

엔 강제 폐지 당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되는 등 대학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교수회는 대학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총장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결정되면 8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해질 19시 48분 달돋이 00시 41분 달질 14시 46분

소나기 오후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오겠다.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23/29°C	23/27°C
목포	23/27°C	23/26°C
여수	23/26°C	23/26°C
나주	23/26°C	23/26°C
완도	23/26°C	23/26°C
구례	23/29°C	23/27°C
강진	23/27°C	23/27°C
해남	23/27°C	23/27°C
장흥	23/27°C	23/27°C
순천	22/28°C	24/28°C
영광	23/26°C	23/26°C
진도	23/26°C	23/26°C
전주	23/28°C	23/27°C
군산	23/27°C	22/27°C
남원	23/27°C	23/26°C
홍산도	23/26°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종량	피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욕	08:54	02:4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22:11	14:5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03:50	10:2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17:22	23: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6	23/27	23/28	23/27	23/27	23/28

인화학교 손해배상 첫 공판

소멸시효 정점...청구액 2억4000만원 산정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공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정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합법인 우석 등은 지난 2005년 성폭력 사실이 공개된 만큼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수생) 심리 이날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인화학

교 대책위 관계자, 원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와 가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가해자 1명당 2000만원을 원칙으로 법원에 대해서도 원상 보호의무 위반과 직권과 교사 등 관리감독 면책 책임을 물어 모두 2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故 공옥진 여사 영결식 엄수

'1인 참무늬의 대가' 무형문화재 고(故) 공옥진 여사의 영결식이 12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9시 전남 영광군 농협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과 정기호 영광군수,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공 여사의 조카 손녀로 일정을 모두 취소한 그룹 투에니온(2NE1)의 멤버 공민지(18)양은 고향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예술혼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고인의 유해는 무등산 원효사에서 49재를 지낸 뒤 증심사 문빈정사에 안치된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옌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